성 박소현의 섹.시.토.크

"남편에게도 관심을 가져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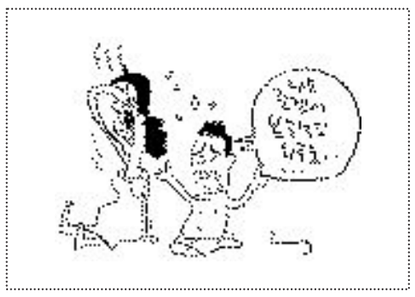
K는 임신 7개월이다. 부른 배를 움켜쥐고 직장을 다니느라 그녀는 요즘 만사가 힘들고 귀찮다. 퇴근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주말에는 시댁, 친정에도 다녀와야 한다.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녀에게 최근 들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임신이 된 걸 안 순간부터 그녀는 남편과의 섹스를 중단했다.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있다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유산 위험시기가 끝나자마자 입덧이 시작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졌다.

입덧마저 끝난 5개월 차가 되자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배가 불러오자 K는 남편 앞에서 옷을 벗는 것조차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다. 거기다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존재감이 커져 더욱 더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7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다.

온통 태아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시간 동안, K는 남편 역시 자신과 한 마음일거라 생각했다. K가 입덧으로 고생하고 부른 배를 안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없이 안쓰러워하는 남편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 K는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저녁 먹자마자 잠이 쏟아져 한숨 달게 자고 일어나보니 자정이 가까운 시간, 그런데 침대 옆자리는 비어있었다. 뭐 하나 싶어 작은방 문을 연순간 K가 본 것은 야동에 심취해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K를 정말 놀래 킨 결정적 장면, 그것은 발목 근처까지 남편의 속옷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었다. K를 보고 놀란 남편은 부리나케 그 자리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K는 모든 것을 보고야 말았다.



"내가 임신해서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그러고 싶어? 나는 임신해서 참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더위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도 참고, 나쁜 생각도 안 하려 애쓰며 사는데, 당신은 그거 하나 못 참아? 그런 저질 동영상 보면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기분 나쁜 건 이해하겠는데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봐. 건강한 젊은 남자가 7개월 동안 한 번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연결된단 말야. 짜증도 늘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도 참아야지. 나처럼 당신도 참아야지."

"너는 애랑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성본능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잖아. 난 그냥 다정했던 아내를 아이한테 빼앗긴 느낌 뿐이라구. 그러니까 너도 내 본능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줘."

임신중 성욕 못참는 남편
"나는 더 많은걸 참는데…"
섹스리스 부부 첫걸음
남편의 본능 이해하고 배려를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말하는 거야?"

다음날 K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 이 날의 다툼을 전해왔다. 내가 K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었다.

"남편에게도 관심을 가져 줘."

아이가 태어나면 장기전에 들어가게 된다. 아이 돌보느라 지쳐 임신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 소홀해 질 것이고 그러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잘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남편의 마음이 떠나있기 일쑤다. 대부분의 섹스리스 부부들이 이런 절차를 밟는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도 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결국 부부간에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배려가 아닐까?

"뭘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방법이야 찾아보면 많지. 인간에게 왜 손과 입이 있겠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꼭 그렇게까지 해 주면, 훗날 남편도 네게 꼭 그렇게까지 해 주는 순간이 올 거야."

모성도 본능인 것처럼 성욕도 본능인 것을 어쩌겠나. 다양한 본능들이 부딪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게 이런 본능이 우세한다고 타인에게도 같은 본능을 강요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결국 양해와 협조인 것이다.

〈연애칼럼니스트〉

리빙 센스

웰빙 두부 버거

두부 1모, 소금 1스푼, 계란 1개, 빵가루 8스푼, 올리고당 1스푼, 야채 조금, 햄버거빵, 토마토, 치즈, 상추, 치커리. 양파, 케첩, 머스타드 소스

① 마요네즈, 머스타드, 올리고당을 섞어 소스를 만든다.
② 상추, 치커리, 토마토, 양파, 치즈 등을 햄버거에 알맞은 크기로 준비한다.
③ 두푸패티를 준비한다.
부침용 두부를 면보에 싸서 물기를 제거한 뒤 소금, 후추, 계란, 빵가루, 양파, 피망, 양배추, 콘을 잘게 썰어 넣고 섞어준다. 준비된 재료에 케첩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손으로 치대 동그랗고 납작하게 빚어준다. 달구어진 팬에 올리고 약한 불로 바삭하게 굽는다.
④ 살짝 구운 햄버거 빵에 입맛에 맞게 준비된 재료를 올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7일(음 5월 24일 戊戌)

子 36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해야 대손이 줄어든다. 48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60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72년생 작은 것부터 잘하라. 84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03.43

丑 37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다. 49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덕을 베풀어라. 61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야 대우를 받으리라. 73년생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85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기지만 좋은 일이 더 많다. 행운의 숫자 : 13.23

寅 38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50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62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4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행운의 숫자 : 05.26

卯 39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51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63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75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리라. 행운의 숫자 : 32.44

辰 40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5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64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76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7.28

巳 41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3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65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아야 한다. 77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행운의 숫자 : 18.40

午 42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리라. 54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66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78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행운의 숫자 : 34.35

未 43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55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67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79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 2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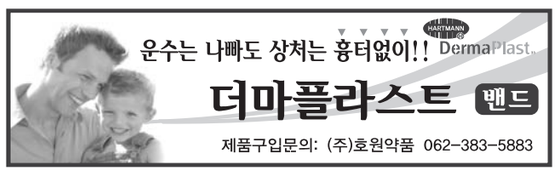
申 44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56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68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80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행운의 숫자 : 16.27

酉 45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57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69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독이 된다. 81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2.42

戌 46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8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70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82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09.39

亥 47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59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71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83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유로 2008'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

많은 축구팬들의 밤잠을 쫓은 유로 2008이 인터넷 세상에서도 화제다. 대회가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우승컵의 향방과 함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히딩크 감독이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4강행을 이뤄낸 히딩크 감독이 이번에는 러시아 대표팀을 유로 2008 4강에 올려놓는 마법을 선보여 네티즌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8강전에서 자신의 조국 네덜란드를 꺾고 4강행 티켓을 거머쥐 더욱 화제가 됐다.

배우 이범수도 자신의 영화 개런티를 자진 삭감하면서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공포영화 '고死 : 피의 중간고사'의 주연배우 이범수는 '충무로 불황'을 감안해 자신의 평소 영화 개런티보다 90%를 삭감한 3천500만원에 출연을 결정했다.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도 자진삭감에 동참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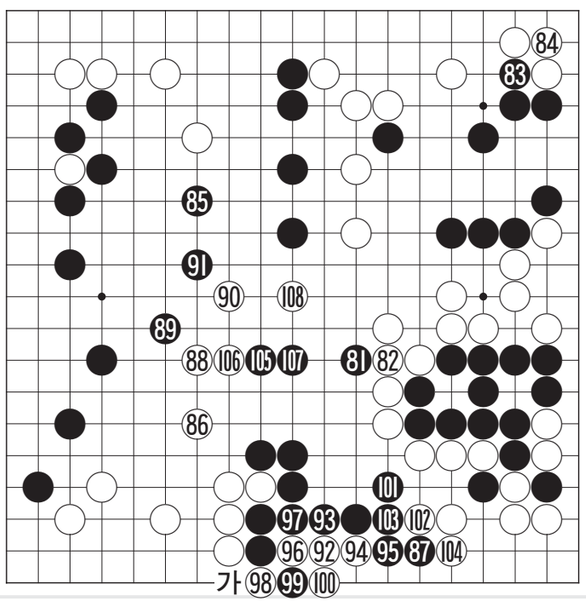
'선풍기 아줌마'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성형 후유증으로 얼굴이 기형적으로 커지면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었던 한미옥씨가 최근 근황을 알려와 네티즌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네티즌을 안타깝게 했던 한 씨는 최근 15차례 얼굴 복원 수술을 받은 후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등 자신의 근황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로 2008에서 러시아 팀을 4강에 안착시키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스 히딩크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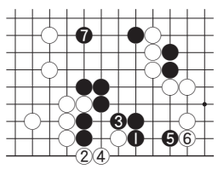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중앙에 집짓기

3회전 1국 5보(81~108)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현승 5단 (창이유통)



〈참고도〉

흑의 포석실패로 백이 편한 국면이 되었다. 이제 관건은 중앙에 흑이 얼마나 집을 짓느냐인데 과연 김현승 5단은 흑 85로 두어 중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리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박광주 5단은 서두르지 않는다.

백 86으로 요소를 점령한 다음 90까지 서서히 진군하며 어느 정도는 집을 지어줘도 괜찮다는 느긋한 심정이다.

흑 89가 중앙에 집을 지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온 수였으나 이 수로는 하변을 '가'로 젖혀 잇는 것이 시급하면서도 좋은 수였다.

박광주 5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 92로 덮쳐오자 실리도 빼앗기고 대마가 심한 공격을 받게 된다.

흑 93으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받는 것이 정수였다. 백은 4까지 넘게 되는데 5를 선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7로 뛰면 실전보다 집모양이 더 풍부하다. 108까지 흑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바둑소식

원성진, 한·중 천원전 우승

원성진 9단이 제12회 박카스배 한·중 통합천원전에서 우승했다. 원성진은 26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이 대회 3번기 2국에서 구리 9단을 상대로 236수 끝에 불계승을 따냈다.

이로써 원성진은 2-0의 완승을 거두며, 천원전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또 역대전적 3전 전패로 열세였던 구리와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징크스에서도 벗어났다. 구리는 천원전 6연패를 달성한 중국 랭킹 1위를 기록 중인 프로기사이다.

이 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천원전 우승자가 매년 양국을 오가며 3번기로 겨루는 경기이며, 우승 상금은 5천달러이다. /오광록기자 kroh@

굿모닝 잉글리쉬 <1191>

You're welcome

뭘요

A : I'm calling to check on the sales position.
B : I'm afraid that the job has already been filled.
A : Okay, Thanks a lot.
B : You're welcome.

A : 판매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B : 유감스럽게도 그 일자리는 이미 충원되었습니다.
A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 : 뭘요.

* check on : ~을 확인하다
* sales position : 판매직
* be filled : 충원되다
* I'm afraid that~ = 유감스럽지만 ~입니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91>

苛(いじ)められてるらしいんすよ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 何か心配事(しんぱいごと)でもあるんですか。
B : ええ、實は家の子が學校で同級生(どうきゅうせい)に苛(いじ)められてるらしいんすよ。
A : 理由(りゆう)はわかってるんですか。
B : それが、子供が話(はな)さないし、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明日(あした)先生に相談(そうだん)しようと思(おも)って…。

A :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B : 예에. 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B : 그게, 아이가 말도 하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내일 선생님에게 상담해볼까 생각중입니다.

心配事(しんぱいごと) : 걱정되는 일
家(うち)の子(こ) : 우리아이
相談(そうだん) : 상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68>

他是我的朋友。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A: 他是谁?
Tā shì shuí?
타 쓰 쉐이?
B: 他是我的朋友。
Tā shì wǒ de péngyou。
타 쓰 워 더 펑요우.
A: 她是谁?
Tā shì shuí?
타 쓰 쉐이?
B: 她是我的女朋友。
Tā shì wǒ de nǚpéngyou。
타 쓰 워 더 뉘펑요우.

A: 그는 누구예요?
B: 그는 저의 친구입니다.
A: 그녀는 누구예요?
B: 그녀는 저의 여자 친구예요.

的 [de] ~의
女朋友 [nǚpéngyou] 여자친구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08>

黔驢之技(검려지기)

검을 검, 노새 려, 어조사 지, 재주 기

검려지기(黔驢之技)는 검주에 사는 당나귀의 재주라는 뜻으로, '당나귀의 뒷발질'을 비유하고, 행동이 서툴러 금방 본색이 들통난다는 의미이다. 검(黔)은 귀주성의 옛 이름이다.

옛날 중국 검주(黔州)에는 당나귀가 없었다.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이 당나귀 한 마리를 배로 실어 와서 무엇에 사용해야 할지를 몰라 산 아래 풀어 놓아 먹였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이 당나귀가 자기보다 큰 것을 보고 놀라 숲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동정을 살폈다. 그때 당나귀가 갑자기 소리 높이 울자 호랑이는 겁이 나서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

얼마 후 호랑이는 다시 와서 그 당나귀 주변을 서성대면서 당나귀의 기량을 알기 위해 일부러 지분거려 보았다.

그러자 당나귀는 화가 나서 호랑이에게 뒷발질을 하였다. 호랑이는 당나귀에게 그 밖의 기량이 없음을 알고, 당나귀에게 덤벼들어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렸다.

이 우화(寓話)는 중국 중당기(中唐期)의 시인인 유종원(柳宗元)의 '삼계(三戒)'(柳河東集)라는 작품에 실려 있다.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욕을 당하는 경우를 일깨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